

목포대,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기관 4년 연속 선정

온(ON) 세상 디지털새싹들 성장 돕는 LEAD 사업단 구성 운영
초·중·고생 대상 AI·SW·AI 융합교육 등 미래 인재양성 앞장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디지털AI혁신 연구소가 교육부 주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25년 디지털 새싹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목포대는 2022년부터 4년 연속해서 해당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게 됐다.

목포대는 SW·AI교육 전문기업인 ㈜한국정보인재개발원과 산·학 컨소시엄 LEAD(Leading Education of AI and Digital) 사업단을 구성해 2025년에도 전국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2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교육, SW·AI 융합 교육, 디지털 리더십, 데이터 소양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다. 2022년 2380명, 2023년 3362명, 2024

년 5119명 등 최근 3년간 약 1만명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4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I ON, 공감 온(溫) AI와 함께하는 다문화 공감 교실 △‘컴퓨터 OWN-세상’에서 성장하는 디지털 리더십 △문제를 알고 데이터를 알면 온(ON) 미래를 LEAD한다 △고잉 ON!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코딩 리더(LEADer) 등 기본과정과 △온(溫)기를 나눠요!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젝트 △인공지능을 올라 탄(ON) 발명가 해커톤 등 특화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대는 지난 3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디지털 새싹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비자 프로젝트 ‘Just Do AI’ 수업 사진

이번 4년 연속 선정으로 국립목포대는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AI 소양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창의적·융합적 문제해결력 및 협업 능력 강화, 올바른 디지털 윤리 의식 함양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광문 목포대 디지털AI혁신연구소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간의 교육 혁신 노력과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의 성과를 인정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미래형 디지털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수피아여중고 총동창회 주관 ‘홈커밍데이’ 열린다

11일 오전 10시 모교 강당

올해로 개교 117주년을 맞은 ‘수피아여중고 홈커밍데이’가 오는 11일 오전 10시 모교 강당에서 열린다.

수피아여중고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홈커밍데이는 동문 500여명이 참석해 정학금 전달식과 자랑스러운 수피아인상 시상, 수피아인의 특별무대 등 스승과 선후배들이 만나 학생 시절을 추억하는 사랑의 공동체 장으로 진행된다.

국내 대다수 동창회가 세대 간 가치관의 격차 및 코로나19 이후 쇠퇴기를 맞고 있지만, 수피아동창회는 집행부의 선후배간 소통 채널 확보, 영 수피아 모임 활성화에 힘입어 기수별 참가자 급증 및 장학금과 동창회 후원금이 잇따르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국은영 (33회) 수피아 총동창회장은 “매일 수피아 카페를 지키는 70대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세대를 잇는 수피아인의 끈끈한 정을 느꼈다”며 “홈커밍데이가 수피아공동체의 진정한 축제로 기억돼 그 전통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자랑스러운 수피아인상은 광주YWCA 합창 지휘자를 역임한 강양은 동문(14회)과 1978 장학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한 이선영(26회) 동문



이 수상한다.

이선영 동문은 “지난 10년 동안 동창들과 매년 장학금을 모아 인성이 좋은 후배들을 응원해 보람 있었다”며 “친구들과 선후배의 격려 덕분에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유사기수인 51회 졸업생 대표 신의정 동문은 “20년 만에 찾은 학교와 친구들, 은사님들을 뵈게 될 설렘으로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홈커밍데이의 역사를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수피아 졸업생으로서 자긍심과 모교 사랑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피아동문회는 지난 4월 수피아여고 부활절 기념 예배에서 개교 120년을 앞두고 탄생된 수피아 합창단(지휘 하수미 동문)의 특색무대에 이어, 재학생을 위한 푸드트럭 계관빵 나누기 이벤트를 펼쳐 졸업생과 재학생 선후배 간의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서구는 7일 ‘Y-마트 부설 (사) 피플위드피플’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을 후원금으로 전달받았다.

광주 서구, 따뜻한 나눔 손길 ‘훈훈’

(사)피플위드피플, 500만원 상당 마트 상품권 전달

광주 서구에 온정 나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서구에 따르면 이날 ‘Y-마트 부설 (사) 피플위드피플’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을 후원금으로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성진 Y-마트 회장 겸 (사) 피플위드피플 이사장, 추왕석 서구시니어클럽 관장 등이 함께했다.

지난 2020년 설립된 범정지정기부금 후원 단체인 Y-마트 부설 (사) 피플위드피플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연간 약 7000만원 규모의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또 올바른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사업에도 매년 1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활발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후원된 Y-마트 상품권은 서구시니어클럽에 전달, 서구의 대표적인 나눔 정책인 ‘천원국시 나눔냉장고’ 사업을 위해 쓰인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착한국시 나눔냉장고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금호타이어, 치매안심센터에 어버이날 물품 후원

광주·전남 대표 항토기업인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지역 상생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시 광산구 치매안심센터에 한방파스 1200매(3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전달식은 이날 오후 2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됐다. 한방파스는 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24번째 설·추석 명절 지역 소외 이웃에게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면서 항토기업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봉사단체인 ‘한사랑회’를 운영, 매월 급여에

서 작은 정성을 모아 독거노인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옥현 광산구 치매안심센터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나눔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와 따뜻한 연대를 상징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부모님 세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발맞춰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PEOPLE

2025년 5월 8일 목요일



담양장학회

각계각층 장학금 기탁 잇따라

담양장학회는 최근 무등산체험영농조합법인과 인원산업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담양 고서면에 위치한 무등산체험영농조합법인 은 담양 농산물을 가공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힘쓰는 업체다. 현재까지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담양 봉산면에 본사를 둔 인원산업은 건설폐기물 처리, 골재 생산·선별·파쇄, 석면 해제업 등을 운영하는 건설 관련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정철원 담양장학회 이사장은 “귀한 마음이 담긴 장학기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광양농협, 벼 품년기원 첫 모내기

광양농협은 7일 세풍 간척지에서 ‘친환경·고품질 벼 품년기원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날 모내기 행사에는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 등 수도작 계약재배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내기 행사를 갖고 고품질 쌀 생산을 기원했다.

광양농협은 다양한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드론 농약 방제, 콤팩트 벼 수확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의 농가지원을 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인사

조선대학교 ◇3급 승진 △총무관리처장

김영목 △정보전산실 정보개발팀장 김성주 ◇4급 승진 △총무관리처 기계전기팀장 박영태 △취업학부 학생복지팀장 박지현 △사법대학 교학팀장 조은미 ◇5급 승진 △대의협력처 국제협력팀 강하리 △의료대학 교학팀 기빛나 △임학처 입학관리팀 운영신 △취업학부생 일자리 지원팀 최화영 ◇6급 승진 △대의협력처 홍보팀 강민욱 △SW중심대학사업단 고재률 △미술대학 교학팀 서지혜 △대학원 교학팀 윤소현 △교무처 창의융합교육단 E-Learning지원팀 김지영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게시판

알림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담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염염,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을센터. 문의 062-374-2818.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4월 11일)

48년생 구실이 발생될 수 있는 날
60년생 투기는 실시간으로 체크하라
72년생 사교술 홀아비 지나친 행동은 주의
84년생 돈 명예도 좋지만 휴식을 취하라
96년생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51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걱정하지 말라
63년생 경제성은 활동 반경을 축소시킨다
75년생 성공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87년생 일에서 해방감 맞보는 날
99년생 변화를 주면 색다른 일이 생긴다

54년생 귀하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라
66년생 돈 문제는 해결되니 근심하지 말라
78년생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날
90년생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

57년생 가슴 얹어지지 말고 상의하라
69년생 보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81년생 한결같이 인정받게 되리라
93년생 분수에 맞게 일해야 복도 따른다

49년생 간사한 피로 귀하를 속이고자 한다
61년생 이익을 나눠 갖는 운
73년생 훌륭한 아이들도 헛수고에 그친다
85년생 일에 방해꾼이 있으니 살펴보라
97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라

52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손해나는 일은 과감히 잊으라
76년생 고생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리라
88년생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년생 임시 방편적이라면 무의미하다
67년생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79년생 힘들게 일한 만큼 결실도 알차겠다
91년생 경정이 예상되니 만전을 기하라

58년생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허덕이는 날
70년생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낭패를 본다
82년생 멀리있지 않고 가까운 데서 찾으라
94년생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50년생 매사에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62년생 투기성 있는 일에는 손대지 말것
74년생 평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86년생 두 가지를 다 잃을 수 있으니 주의
98년생 친구 문제로 자리에 누울 수도 있다

53년생 믿는 도가에 발등 찍힌다
65년생 문에서 미련을 갖지 말라
77년생 호기가 주어졌을 때 취하라
89년생 고인하지 말고 이해 시켜라

56년생 명분부터 확실하게 세울 시기
68년생 나의 과오를 시인하고 사과하라
80년생 만만찮은 상대가 나타나서 힘든 날
92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정진하라

59년생 빚 독촉으로 상심하게 되리라
71년생 현실의 상황에 적응이 필요한 것
83년생 급전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95년생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것이다